〔報　文〕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 No. 2(1978)

제주도 女大生의 衣服行動과 價値觀과의 相關硏究

鄭　三　好*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s and General Values of Che-ju College Women.

Sahm Ho Ch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s and general values of Che-ju college women.

General values were measured by The Allport-Vernon-Lindzey Study of Value, which determines the relative prominence of six basic values.

General clothing behaviors were assessed by statements dealing with interests in status symbol, fashion and practicality of clothing. Measures of attitudes toward blue jeans consists of: attitudes regarding practicality and youth symbol. In addition the possession, and frequency of wearing blue jeans were assessed.

The sample consisted of 284 students in Che-ju college women, Korea. The data, collec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t-test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Economic valu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tatus symbol of clothing.
2)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olitical value and the fashion of clothing.
3) Social valu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racticality of clothing, however,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ocial value and attitudes regarding practicality of blue jeans.
4) Practicality attitudes toward blue jean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racticality of clothing, whereas youth symbol attitudes toward blue jean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fashion and the status symbol of clothing.
5) The groupth which had blue jeans had higher interest of fashion in clothing than the groupth which had no blue jeans.

Ⅰ. 緖　論

社會心理學的 側面에서의 의복의 중요성은 社會的 相互作用에서 그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身分, 職業, 地位, 價値觀, 性格, 自我槪念 등을 무언중에 전달하여 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

價値觀은 인간의 行動方向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槪念으로서 여러학자들의 目的과 動機에 따라 그 본질이 定義되고 있다. Kohlmann[1]은 이를 요약하여 가치관은

* 濟州大學 家政敎育學科 講師.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e-ju College

개인의 상황, 목표, 욕망의 개념으로부터 발생되며, 개개인은 가치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르고, 개개인의 경험 및 환경이 가치관을 다르게 지닐 수 있게하는 要因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ohlmann은 가치관에는 외재적, 내재적 가치관이 있으며 외재적 가치관은 개인의 실제적인 표현, 주장등 言語로 표현할 수 있고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치관이고, 반면 내재적 가치관은 言語로 표현할 수 없으나 개인의 행동에 나타나는 가치관으로서 개인이 인식하기 힘든 가치관이다.

Thomas[2]는 사회적인 변화는 사회의 가치제도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의 기능은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정범모[3]는 價値觀이란 行動方向選擇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서 1) 개개인의 動機와 抱負를 결정하고, 2) 知覺과 解釋을 크게 좌우하며, 3) 여러가지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以上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價値觀은 人間의 行動方向設定에 영향을 주는 一般槪念이며, 외재적 내재적 가치관이 있고,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이 이를 변화시킬수 있으며, 인간행동과 사고에 대한 질서 및 방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4,5,6,7]과 Allport-Vernon-Lindzey의 *Study of Values* 검사[8]를 적용한 연구들[9,10]로 구분할 수 있다.

김태길[4]은 古代儒家와 韓國大學生의 道德觀念 比較研究에서 대학생들은 傳統主義的 價値觀이 높아 가족주의적 도덕 관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觀念은 家族主義的 傳統에 머물면서도 行動은 개인주의적인 새로운 흐름으로 차차 높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창훈[5]은 김태길의 가치관서열을 적용한 연구결과 전문학생들은 인격 및 학식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고유의 전통계승 및 向學熱의 향상으로서 自己實現을 추구하려고 하며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을 지닌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고 하였다.

홍승직[6]은 한국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知識人의 價値觀을 연구한 결과 근대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은 변해가고 있고, 유교적 가치제도는 근대화에 장애가 되어왔으며, 여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변화하고 있어 여성지위향상을 지지하였다.

황응연[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社會現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과거의 傳統的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移行하여 왔으나 아직도 도덕윤리에 관한 가치관은 중요한 행동규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고, 가정환경을 開放, 親愛, 自律로 지각하는 대학생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Allport-Vernon-Lindzey의 *Study of Values* 검사[8]는 Edward Spranger의 Types of men의 理論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학생 및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검사이다. 이것은 人間은 대체로 여섯가지 인격적 측면 즉 學理的, 經濟的, 審美的, 社會的, 政治的, 宗敎的, 價値觀을 가진 사람으로 類型지을 수 있다는 것이며, 1931년에 Allport-Vernon에 의하여 작성되어 1951년에 第一次, 1960년에 第二次 修正되었으며, 가치관 측정에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임인재[9]는 서울대학교 각 單科大學 학생 및 他대학 神科學生을 대상으로 *Study of Values* 검사[8]의 재표준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공대학에 따른 높은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問項分析結果로는 檢査의 문항을 그대로 暫定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문항 수정 및 새로운 표집에 의한 문항분석이 검사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양자[10]는 *Study of Values* 검사[8]를 사용하여 看護學生들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것이 종교적 가치관, 그 다음이 심미적, 사회적 가치관이었다.

價値觀과 衣服에 관한 硏究에서는 *Study of Values* 검사[8]를 사용한 것이 많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yan[11]에 의하면 Newman, Nickerson, Bryer 등의 연구는 여성의 가치관과 의복관심과의 관계를 밝혔고, Hoffman은 성인여자의 가치관과 의복의 選好와의 관계를 밝혔으며, Creekmore는 여대생의 일곱측면의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Lapitsky[12]는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의 가치관과의 연구에서 의복의 審美的, 經濟的 가치관이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고, 일반적 가치관은 의복의 가치관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Richards와 Hawthorne[13]는 남자대학생들의 가치관, 신체에 대한 만족도, 의복행동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경제적 가치관과 의복의 경제성 및 안락감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경제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반면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경제성에 관심이 낮았다.

Kefgen[14]은 Spranger의 類型과 의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경제적 가치관이 높을 경우

의복선택을 재정적 신분의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Horn[15]은 의복의 가치관 진술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유행을 알고 따르는 것은 경제적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러한 옷이 권위, 리더쉽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광경[16]이 *Study of Values* 검사[8]중 1部만을 번역하여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복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심미성에,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에,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았다. 반면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 상징성에, 경제적 가치관 및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낮았다.

김병미[17]는 青少年의 衣服行態에 대한 연구결과 여학생의 바지착용은 경제적, 실제적 목적보다는 流行의 원인이 크다고 하였다.

青年文化에 대한 언급에서 Reich[18]는 「블루진스」를 자아의 확인—새로운 옷으로서 보고 이러한 옷은 富와 地位의 차별이 없이 새로운 민주적 가치들을 표현하며 반면 비싼 옷은 사회적 압박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 하였다.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데님」 의복에 대한 연구결과[19]에서 「데님」 의복의 젊음의 상징개념, 소요량, 착용도는 男性的—女性的 性格과 관계가 있었고, 「데님」의복에 대한 실용성개념 및 착용도는 女性의 役割에 대한 態度와 관계가 있었다. 또한 「데님」 의복에 대한 개념은 의복의 個性, 實用性 및 流行에 관계가 있었으며 「데님」 의복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행에 관심이 높았다.

양남순[20]의 제주도 女性의 衣生活 意識에 관한 연구에서 人間의 生活樣式, 行爲, 態度, 價値觀 등의 변화에 따라 衣生活도 변모되어 가고 있고, 경제성, 매력을 끄는 의복, 유행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본 硏究의 目的은 제주도 女大生들의 一般的 價値觀을 파악하고 그 가치관이 衣服行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제주도 여대생들에게 알맞는 의복행동의 지침 및 올바른 敎育方案을 설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 관계문헌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설정하였고 그외에 부가적으로 몇가지 問題도 밝혀 보고자 한다.

A. 假 說

1. 經濟的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身分象徵性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2. 政治的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流行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3-a. 社會的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實用性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3-b. 社會的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청바지의 實用性 槪念이 높을 것이다.

〈附加的 關心〉

1. 價値觀과 衣服行動과의 相關關係
2. 衣服行動 相互間의 關係
3. 청바지 有無와 衣服行動과의 比較

B. 用語定義

價値觀(Values): 行動方向選擇에 영향을 주는 一般槪念을 말하며 여기서는 Spranger의 여섯 類型의 사람을 의미한다.

1. 學理的인 사람(The Theoretical): 지배적인 관심은 眞理를 發見하는데 있고, 人生에 있어서의 目的은 知識을 整理하고 體系化하는데 있는 사람이다.

2. 經濟的인 사람(The Economics): 무엇이 有用한가 하는것에 가장 흥미를 갖고, 실용적인 사람이다.

3. 審美的인 사람(The Aesthetic): 形態 및 調和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우아, 균형, 적합등의 관점으로 事物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4. 社會的인 사람(The Social): 人間愛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他人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스로 친절하고 同情的이고 非利己的인 사람이다.

5. 政治的인 사람(The Political): 우선적으로 勢力이나 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6. 宗敎的인 사람(The Religious): 神秘主義者이고, 全體로서 宇宙를 理解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衣服行動 : 의복에 대한 態度, 行動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의복관심과 청바지에 대한 의복행동을 포함한다.

1. 身分象徵性 : 의복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

2. 流行 :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형을 고려하여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

3. 實用性 : 의복에 있어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손질하기 쉽고, 입어서 편한 것등에 대한 태도

4. 청바지 : 현재 활동적인 의복 또는 작업복에 많이 사용되는 푸른색 옷감으로 만든 바지

5. 「데님」 의복의 槪念 : 「데님」으로 만든 의복의 實用性에 대한 개념(내구성, 가격, 활동성, 안락감, 착용의 多樣性) 및 젊음의 象徵으로서의 개념(젊음의 상징, 유행, 멋, 시대감, 신경쓰지 않고 입음)

Ⅱ. 方法 및 節次

A. 測定道具

1. 價値觀

여섯가지 領域으로 分類된 Allport-Vernon-Lindzey의 *Study of Values* 검사[8]를 선택하였다. Ⅰ部 30問項과 Ⅱ部 15問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問項은 한 문제의 질문에 대하여 Ⅰ部에서는 두가지, Ⅱ部에서는 네가지 選擇事項을 요하는 對答이며, 선택의 비중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있다.

2. 衣服行動

衣服行動은 두 측면의 일반적인 의복관심과 청바지에 대한 의복행동을 측정하였다.

一般的인 衣服關心의 세 측면인 身分象徵性, 流行, 實用性은 각기 10問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문항들은 신분상징성은 이금실,[21] 유행은 강혜원,[22] 실용성은 김광경[16]의 의복행동 연구에서 선택사용하였다.

청바지에 대한 衣服行動 측정도구는 「베넘」 의복연구[20]에 사용되었던 것을 보완하여서 사용하였다. 청바지에 대한 개념, 청바지의 소유량, 착용목적 및 착용회수, 금년도에 구입한 청바지의 數등에 관한 것이며, 모든 問項은 1978년 7월의 22명의 예비검사를 거쳐 완성시켰다.

B.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본 연구의 標準對象은 제주도女大生 284명으로서 제주대학 118명, 교육대학 40명, 간호전문학교 70명, 실업전문학교 56명으로 구성되었다. 資料蒐集은 1978년 8월末부터 9월中旬 사이에 수업시간 중에 設問紙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응답의 소요시간은 30~40분이었다. 전체 315부가 회수되었으나 대답이 불완전한 것, 성의없는 것등을 제외한 284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標集對象의 大學 및 學年別 分布傾向은 〈표 1〉과 같으며 종교를 가진 학생이 51%, 중류층의 생활수준을 가진 학생이 75%였다.

〈표 1〉 표 집 대 상

대학 / 학년	대학		전문학교		합계
	제주	교육	간호	실업	
1	35명	16명	66명	32명	149
2	44	24	4	24	96
3	28				28
4	11				11
합계	118	40	70	56	284

C. 研究의 限界點

본 연구는 제주도 여대생만을 對象으로 標集하였으며 標集對象者들은 低學年의 학생에 치우쳐 있었고, 생활수준도 중류층에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이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Ⅲ. 結　果

제주도 여대생의 衣服行動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사변인의 분포경향 및 검사변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A. 檢査變因의 分布傾向

가치관의 여섯 측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70점이었다. 전체적으로보아 종교적,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학리적 가치관은 가장 낮았다.

〈표 2〉 가치관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가치관 / Mean, S.D	n=284					
	학리적	경제적	심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Mean	35.78	38.25	40.95	41.89	39.83	42.85
S.D	6.13	6.33	7.01	6.45	5.63	8.59

일반적인 의복관심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10점~50점이었다. 의복의 신분상징성, 유행, 실용성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실용성에 가장 높은 관심이 있었고, 다음으로 유행이며 가장 낮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이었다.

〈표 3〉 일반적인 의복관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일반적인 의복관심 / Mean, S.D	n=284		
	신분상징성	유행	실용성
Mean	22.24	27.46	34.22
S.D	5.00	5.08	5.16

청바지에 대한 개념으로는 청바지의 신경쓰지 않고 입음, 활동성, 다목적 착용등이 청바지를 입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바지의 소요량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였고, 대체로 1~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70%,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약 16%를 차지하였다.

청바지의 착용회수는 일주일동안에 약 51%가 2~3번정도, 매일 착용이 약 2%, 전혀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약 18%를 차지하였다.

금년도에 구입한 청바지는 1벌 이상이 57%, 전혀 구입하지 않는 사람이 43%였다.

청바지 착용목적은 84%가 운동이나 등산갈때 66%가 캠퍼스 웨어로 실용적인 활동복으로서 착용하고 있었다.

B. 假設에 제시된 價値觀과 衣服行動과의 相關關係

가설에 제시된 가치관의 세 측면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의복행동 / 가치관	n=284			
	일반적인 의복관심			청바지에 대한 의복행동
	신분상징성	유행	실용성	실용성
	r	r	r	r
경제적	.15**			
정치적		.01		
사회적			.15**	.00

** 이 수준에서 유의적임

첫째로, 경제적 가치관은 의복의 상징성과는 $p<.01$ 수준에서 정(正)적인 관계가 있어 (가설 1)은 긍정되었다. 즉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정치적 가치관은 의복의 유행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어 (가설 2)는 부정되었다. 즉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유행의 관심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로, 사회적 가치관은 의복의 실용성과는 $p<.01$ 수준에서 정(正)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청바지에 대한 실용성 개념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어 (가설 3)은 부분적으로만 긍정되었다. 즉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실용성에 관심이 높았으나 청바지에 대한 실용성 개념에는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었다.

C. 假說以外의 附加的 關心

1. 價値觀과 衣服行動과의 相關關係

가설이외에 나타난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가치관은 의복의 유행과는 $p<.01$ 수준 ($r=-.14$)에서 부(否)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유행에는 관심이 낮았음을 보여준다.

2. 衣服行動 相互間의 關係

의복행동변인 사이의 의미있는 상호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 의복행동 상호간의 관계

구분	의복관심	n=284		
		실용성	유행	신분상징성
		r	r	r
일반적인 의복관심	유행	-.25**		
	신분상징성	-.21**	.37**	
청바지에 대한개념	실용성	.24**		
	젊음의 상징		.26**	.19**

** 이 수준에서 유의적임

첫째로, 의복의 유행과 실용성과는 부(否)적인 관계가 있어 유행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실용성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의복의 신분상징성은 유행과는 정(正)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실용성과는 부(否)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유행에 관심이 높으나 실용성에는 관심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셋째로, 청바지에 대한 실용성 개념은 의복의 실용성과 정(正)적인 관계가 있어 청바지에 대한 실용성개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실용성에도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네째로, 청바지에 대한 젊음의 상징개념은 의복의 유행 및 신분상징성과는 정(正)적인 관계가 있어 즉 청바지에 대한 젊음의 상징개념이 높은 사람이 의복의 유행 및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3. 청바지 有, 無와 衣服行動과의 比較

〈표 6〉 청바지 有, 無와 衣服行動과의 比較

두집단 / Mean, S.D / 의복행동	n=234 청바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		n=50 청바지를 소유하지 않은 집단		t-tests
	Mean.	S.D	Mean.	S.D	
신분상징성	22.35	4.79	21.70	5.91	0.83
유행	27.87	4.92	25.54	5.40	2.98**
실용성	34.15	5.02	34.56	5.79	0.51

** 이 수준에서 유의적임

標集對象者들의 集團을 청바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과 청바지를 소유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의복관심 세 측면에 대하여 t-檢定으로 比較한 結果는 〈표 6〉과 같이 유행만이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청바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청바지를 소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의복의 유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Ⅳ. 論　議

價値觀과 衣服行動에 관한 本 硏究의 結果를 中心으로 몇가지 관점에서 論議하고자 한다.

첫째로,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아 Kefgen[14]의 서술 및 김광경[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여준다. 즉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수단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로, 정치적 가치관과 의복의 유행과는 관계가 없어 Horn[15]의 유행과 의복의 정치적인 가치관에 대한 진술을 일반적인 정치적 가치관과 연관지어 가설을 설정한 것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편 표집대상이 저학년의 여대생이여서 정치적 가치관이 낮았다는점과 또한 표집대상의 절반정도가 실질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전문학생이여서 전반적인 유행의 관심이 높지않은데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층을 표집대상으로 할 경우 정치적 가치관과 유행과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셋째로,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 즉 人間愛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他人을 존중하고 非利己的인 사람이 의복의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청바지의 실용성개념과는 관계가 없었다. 한편 청바지에 대한 실용성 개념은 청바지를 민주적 가치를 표현하는 옷이라는 Reich[18]의 진술을 기초로 사회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청바지는 실용성보다는 유행으로서 이 학생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김명미[17]의 바지착용과 유행과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네째로, 의복변인 사이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면 청바지에 대한 젊음의 상징개념은 의복의 유행 및 신분상징성과 관계가 있어 「데님」 의복연구결과[19]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바지를 젊음의 상징인 새로운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전반에 대하여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사람들이다.

다섯째로, 청바지의 有, 無와 衣服行動과의 비교연구결과 유행만이 의미있는 관계가 있어 유행에 대한 관심이 청바지를 소유하게한 원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주도 여대생들에게서 느꼈던 근면, 검소등 실질적인 생활태도에서 청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실용성에 대한 관심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로, 본 연구결과와 김광경,[16] 최양자[10]의 연구결과를 비교할때 한국여대생들의 가치관은 종교적 가치관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8]에서는 심미적 가치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제주도 여대생들이 지역적으로는 가깝지 않으나 같은 문화권 안에서 형성된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引 用 文 獻

1. Kohlmann, E.L, Personal Values What are They?, *Journal of Home Economics*, 54 (No. 10), (1962).
2. Thomas, W.L, Value and American Youth *Journal of Home Economics*, 61(No. 10)(1969).
3.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서울. (1973).
4. 김태길,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일조각 : 서울, (1967).
5. 이창훈, 전문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6. 홍승직, 지식인의 가치관, 삼영사 : 서울, (1972).
7. 황옥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비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4).
8. Allport, G.W., Vernon, P.E & Lindzey G., *Study of Values*, 3rd ed(Manual) Boston: Houghton Mifflin Co.(1960).
9. 임인재, 가치관검사의 재표준화 학생연구, 서울대학생지도 연구소, 3(No. 1), (1964).
10. 최양자,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7).
11.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hart and Winston, Co.(1966).
12. Lapitsky, M.,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

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1).
13. Richard, E.A. & Hawthorne, R.E., Value,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93(No. 3) (1971).
14. Kefgen, M. &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N.Y: The Macmillan Co. (1971).
15.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Houghton Mifflin Co.(1975).
16.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3).
17.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 (No. 3), 31-45, (1975).
18. 이중환, 자아의 확인—새로운 옷, 청년문화론, 현암사 : 서울, (1976).
19. 정삼호, 강혜원, 「데님」의복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 (No.2), 65-70, (1977).
20. 양남순, 제주도 여성의 의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No. 4), 35-48, (1976).
21.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비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8).
22.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연세대학교 대학원, 349-376, (1974).